



시니어 순모임

- ❖ 찬양--- 찬송가 589 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다같이
- ❖ 대표기도 ----- 말은이
- ❖ 감사제목 나누기 ----- 다같이
(한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 나누기)
- ❖ 기도제목 나누기 ----- 다같이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 ❖ 말씀나누기 ----- 다같이
- ❖ 합심기도 ----- 다같이
 1. 교회설립 51 주년이 된 KCPC 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 블레싱 파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 ❖ 광고 ----- 말은이
- ❖ 주기도문 ----- 다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교회 설립 51 주년 기념 부흥회, 강사: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1/8(금)-10(주일), 금:7:00PM, 토:6:30AM, 7:00PM
2. 온가족 추수감사절 예배 : 28 일(목) 오전 10 시
3. 블레싱 파크를 위해 기도와 건축헌금을 위해 마음담아 동참해 주세요.

(통일 308)

감사절
J. O. Thompson, 1885

넓은 들에 익은 곡식

Far and near the fields are teeming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 9:37)

589

REAPERS: 6.7.8.7.REF.
J. B. O. Clemm, 1885

보통으로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 치며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매우 적으니
3.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4. 거 뒤 들인 모 든 알 곡 천 국 창 고 들 인 후

어 디 든 지 태 양 빛 에 향 기 진 동 하 도 다
열 심 있 는 일 꾀 들 을 주 여 보 내 주 소 서
황 혼 때 가 되 기 까 지 추 수 하 게 하 소 서
주 가 베 플 잔 치 자 리 우 리 참 여 하 겠 네

후렴
무 르 익 은 저 곡 식 은 낫 을 기 다 리 는 데

때 가 지 나 가 기 전 에 어 서 추 수 합 시 다 아 멘

별과 같이 빛나라, 다니엘 12:3 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자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흠이 없는 인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 생애 걸쳐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참 멋지게 살아간 한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십대 어린 시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방 나라에서 평생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높인 사람입니다.

1.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3 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사람이고 두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1:7 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경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공급자가 되십니다.

왕의 식탁을 거부한 다니엘과 세친구에게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실에 불러 특별한 호의를 베풀습니다. 왕실의 음식을 먹고, 왕실 교육을 받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어둠에서 한 순간 찬란한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왕실의 최고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평범한 채식을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되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들 가슴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3. 기적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다니엘을 왕실의 고관들이 그를 시기 하여 죽음에 빠트리는 음모를 세웁니다. 그들은 앞으로 30 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라도 절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전에 하든 대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이토록 좋아하실까요? 시편 147:10-11 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데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이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